

300년만에... 신안 만재도 여객선 접안시설 완공

77억 투입 ... '어촌뉴딜300사업' 이후 전국 첫 준공식
목포서 5시간 40분 걸리던 뱃길 2시간 10분이면 도착



정부의 '어촌뉴딜300사업' 일환으로 새롭게 단장된 만재항 일대 항공사진.

<신안군 제공>

신안군 흑산도 만재도에 여객선을 댈수 있는 접안시설이 완공됐다. 접안시설 등이 정부에서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공된 것으로 의미를 더한다.

흑산도에서 45km 떨어진 외딴 섬 만재도는 1996년 전기가 들어오고, 2010년이 되어서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던 오지이다.

특히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바다 한가운데서 종선으로 갈아타고 섬에 들어가야 했던 열악한 곳이기도 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가진 만재항에는 어촌뉴딜사업 예산 77억3600만원이 투입돼 접안시설(40m)과 경사식 선착장(53m), 어구보관장고 등이 설치됐다.

만재항 접안시설이 준공되면서 쾌속선 접안이 가능해졌다. 목포에서 흑산도를 거쳐 만재도까지 5시간 40분 걸리던 바닷길도 쾌속선이 취항하고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2시간10분으로 단축됐다.

만재도 섬에 주민들이 처음으로 들어온(1700년대) 이후 300여 년만에 만재항에 여객선이 직접 접안하게 되면서 주민들 가슴에 맺힌 오랜 한이 풀리게 됐다.

만재항 접안시설은 정부의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전체사업비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신안군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사업비 1415억원(국비 991, 지방비 424)을 확보해 어촌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어촌·어항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만재항과 함께 2019년에는 진리항 등 3개소, 2020년 다물대둔항 등 5개소, 2021년 양바위 등 2개소 등 모두 10개소가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주민들이 섬에 살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한 조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어촌뉴딜300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2022년 어촌뉴딜사업' 대상 지역으로 15개소, 1539억원 규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선정결과에는 올해 연말 최종 결정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호응 영광군, 공정률 80% 순조

영광군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복합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 국·도비 등 47억원을 확보해 주택 태양광·태양열 보급 지원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영광군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복합지원사업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했다.

현재 주택 373곳, 공공·민간건물 87곳 등 총 46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370곳이 완료돼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다.

영광군은 상반기 내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스마트폰과 연계한 '일여전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요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전력 관리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2022년 2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백수읍·홍농읍·법성면' 등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4월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 사정으로 2021년 1차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영광읍·군서면 주택·건물 소유자는 내년 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할 예정이며, 추가 수요 조사를 5월말까지 실시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ilee@kwangju.co.kr

멸종위기종 '나도풍란' 홍도에 '터 잡는다'

국립생태원, 150개체 시험 이식...신안군, 국립공원공단과 관리 협업

멸종위기식물 '나도풍란'이 신안군 홍도에 이식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신안군 및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종인 나도풍란 150개체를 신안군 홍도에 시험이식한다고 22일 밝혔다.

나도풍란은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2027)'에 따라 2027년까지 우선 복원을 목표로 진행 중인 '우선 복원 대상종' 25종 중 한 종이다.

지난달 4일 국립생태원과 신안군은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험 이식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나초과 다년생 식물인 나도풍란은 주로 나무 수피나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 한반도에서는 남해안 일부 섬과 해안지역, 제주도에서 자생했다.

하지만 꽃과 잎이 아름다워 남획되면서 현재 야생에서는 절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자생지 복원 사업을 위해 증식한 일부 개체를 홍도 내 야생 적응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생육환경과 이식 시기 등 나도풍란 복원

을 위한 기초자료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식 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체수 변화(생존율), 생장상태(뿌리, 잎 등), 개화시기 등 연구도 수행한다.

이식한 나도풍란의 불법 훼손 방지를 위해 경고문을 부착하고, 신안군 및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순찰·감시한다.

홍도 내 공동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국립생태원은 나도풍란 시험이식으로 개체군을 복원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생태관광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 온라인쇼핑몰 **해남미소** 판로 확대 나서

리컴퍼니·농업법인 남도인과 협약

해남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해남미소는 유통 전문 기업인 리컴퍼니, 농업회사법인 남도인과 해남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코로나19로 농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이 있는 농가 판로 확보를 위해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와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 플랫폼을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컴퍼니는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와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을, 남도인은 대형마트·슈퍼·아울렛 등 대형거래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해남군과 이들 업체는 사업의 협력사 및 파트너 사로서 농수산물 판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온오프라인 최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와 협약을 통해 다양한 해남의 품질 좋은 농수특산물에 대한 유통 판매 전략과 마케팅 노하우를 마련해 해남 농수특산물이 유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미소는 해남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익형 쇼핑몰로 지난해 직영 9년 만에 최고 매출 118억원을 올려 전국 지자체 중 으뜸 쇼핑몰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370여 농가 1600여 개 상품이 판매되고 대표 농수특산물로 쌀, 고구마, 배추, 김, 전복 등이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친환경비료 2만t 공급

진도군, 12억 상당

진도군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12억원을 들여 친환경비료 2만t을 농가에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비료는 땅심 등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을 작물별 파종시기에 따라 공급한다.

유기질비료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여 토양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며, 올해 8억5,000만원을 투입해 3,373농가에 1만8268t을 공급한다.

올해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는 1포당(20kg)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400~2000원을 지원한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석회 공급을 통해 농작물 생장을 돕고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에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준다.

3억2000만원을 투입해 규산질과 석회질, 패화석 등을 596농가에 2272t을 공급할 예정이다.

군은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친환경 농업 실천을 통한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 살 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